

태국의 사회구조 변화와 정치변동*

김홍구**

I. 머리말

동남아시아의 자본주의적 관료정체를 대표하는 태국은 1960년대까지 고도로 폐쇄적이던 정치구조가 경제발전 에 따른 사회구조의 분화와 사회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형성된 1980년대 타이정치체제를 차이아난 (Chai-Anan Samudavanija)교수는 준민주주의(semi-democracy)라고 특징 지웠다. 준민주주의 정치체제는 1980년 3월 썬렘 정권(Prem Tinsulanond, 1980-1988년)집권 후 개막되었다. 썬렘 정권 하에서 군과 민간관료들은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비관료세력들-기업가, 정당, 시민사회운동세력 등과 권력을 공유해야 했다.

* 이 글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년 연구과제("동아시아의 성장, 위기, 통합: 21세기 발전모델의 탐색," 과제번호 KRF-2002-072-BL2058) 중 동남아 2팀의 제 1차년도 연구과제인 "동남아 정치변동의 동학: 안정과 변화의 갈림길"의 일부이다. 이 연구는 2년 차 계획으로 진행되며 1년 차 연구시기는 1997년 태국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로 정해둔 바 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hongkoo@taejo.pufs.ac.kr

1988년 총선 후 **쁘랩이** 물러나고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을 기반으로 한 **차타이 당(Chat Thai Party)**의 **차차이(Chatichai Choonhavan: 1988-1991년)** 정권이 들어섰다. 차차이 정권 하에서 비관료세력에 대해 점차 권력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군은 1991년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지만 쿠데타 이듬해인 1992년 시민사회운동세력과 중산층이 주도하게 되는 5월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여 군부정권은 퇴진하고 문민정부가 다시 등장했다. 이때부터 태국의 권위주의 정치구조의 약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5월 민주화운동 이후 1997년까지 태국에는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3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군사쿠데타가 아닌 선거가 정권교체의 유일한 수단으로 정착했다. 또 시민사회운동세력의 힘이 어느 때 보다도 강화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가장 큰 정치적 이슈는 경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한 성공적인 정치개혁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1997년 경제위기가 다가왔을 때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태국의 경제위기는 역설적으로 민주적인 정치개혁을 촉진하게 된다. 그 동안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세력의 성장으로 인한 국가권력과 사회세력 사이의 균형변화는 권위주의적 국가구조의 민주주의적 재편을 위한 압력을 가중시켰으며 1997년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오히려 경제적 요인이 민주적 정치개혁을 촉진하여 1997년 헌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태국의 정치구조나 정치체제의 특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릭스(Riggs 1966)**는 관료지배체제(bureaucratic polity)의 개념으로 태국의 정치체제를 설명했다. 그러나 태국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해 비관료세력들의 정치적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관료지배체제에 대한 적실성의 논란이 있게 되었으며 태국의 정치학자인 **차이안난(Chai-Anan Samudavanija)**이나 **쑤 분봉간(Suchit Boonbongkan)**은 준(準)민주주의(semi-democracy)의 개념을 주장하게 되었다. 준민주주의체제는 관료세력이 비관료세력에게 권력의 일정부분을 양보함으로써 비관료세력들의 제한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Chai-Anan 1986). 그러나

준민주주의체제는 태국정치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관료지배체제 모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경향은 관료지배체제의 개념을 벗어나는 새로운 분석틀, 즉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국가와 사회, 자본과 노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경향이며 휴이슨(Kevin J. Hewison)과 아넥(Anek Lothamatas)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휴이슨(Hewison 1993: 181)은 “태국의 사회·정치생활이 분기점에 다다랐으며 …… 새로운 사회, 정치세력연합이 출현하여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이슨은 기업가들의 지배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넥(Anek 1992: 1995)은 티라웃(Thirayuth 1993) 등과 함께 도시 중산계층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80년 이후 비관료세력들의 성장으로 태국의 정치체제는 전통적인 관료지배체제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보여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군과 민간관료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비관료세력들의 취약성이나 전통적 관료지배체제 하에서 정치발전을 저해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태국의 경제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야기된 정치변동의 잠정적 양상을 정치변동과 관련된 중요한 행위자-군, 기업가, 정당, 시민사회운동세력, 국왕-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의 연구 시기는 1980년 이후 1997년 헌법개정 시기까지로 한다. 1980년 이후 태국 정치변동의 일반적 양상은 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서서히 감소하는 탈군부권 위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반면 비관료세력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증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글은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정치 행위자 중심으로 과거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정치변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군의 내부적 변화와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어떠했나를 살펴봄으로써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킨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비관료세력들-기업가,

정당, 시민사회운동세력-의 구체적인 정치적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된 원인을 규명하고 정치적 역할의 문제점도 동시에 파악해 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정치변동 과정에서 군과 비관료세력들이 대립하여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왕은 어떤 정치적 역할을 했나를 살펴 볼 것이다.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정치변동의 태국적 특성을 잘 부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평가와 전망이다. 각 장의 논의 전개는 장마다 제시된 분석틀에 따라서 이루어 질 것이다. 이 글은 이론적인 글은 아니지만 태국 정치변동의 경험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일반적 정치변동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군의 내부적 변화와 문민통제

1. 군 내부의 파벌주의와 분열

1980년대 태국군의 파벌주의와 분열은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1973년 10월 14일 학생혁명으로 타넘 정권(Thanom Kittikachorn: 1963-73년)이 붕괴된 후 군부 내에는 과거 피분(Phibun Songkhram), 짜릿(Sarit Thanarat)과 같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지도자나 그들을 지지하는 강력한 파벌이 없었으며 1970년대 중반 몇 개의 비공식적 정치조직이 중간계급 장교사이에서 태동되었다. 그들은 그 후 중요한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다.

영터크스(The Young Officers Group, Khana Thahan Num)는 1973-76년 사이에 결성되었다. 그들은 육군 사관학교 7기(1960년 졸업)졸업생들이다. 1977년 타닌 수상(Thanin Kraivichien)을 끄리양삿(Kriangsak Chomanand)으로 대체하는 쿠데타 배후세력이 되었고 이어서 1980년 2월에 끄리양삿을 뻬렘으로 대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뻬렘이 수상이 된 후 1981, 1985년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에 그쳤다. 군부 내에서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걸쳐 가장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군(The Democratic Soldiers, Thahan Prachathippatai)이다. 영터크스가 전투부대 소속이었던데 비해 그들은 국내안보사령부(ISOC: Internal Security Operations Command)와 참모부 소속이었다. 반란활동진입에 참여해 정치적 전략을 개발시킨 경험을 가지면서 정치화되었으며 66/2523과 65/2525¹⁾를 입안한 주체였다. 민주주의 군의 대표격 인사는 한(Harn Leenanond) 장군과 차왈릿 장군이다.

세 번째는 육사 5기 세력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영터크스나 민주주의 군보다 두드러진 정치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자신들을 싸릿 전통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황태자에게 강력한 충성심을 표시하는 등 보수적 색채가 강한 세력이었다. 영터크스나 민주주의 군과 달리 군은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고 사회변화를 초래할 의무를 갖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주장을 공화제적인(republican)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Phongpaichit et al. 1995: 330).

영터크스, 민주주의 군, 육사 5기 세력 중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은 영터크스와 육사 5기 세력이었다. 1981년 영터크스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5기의 대표자격인 당시의 쑨진다(Suchinda Kraprayoon)대령은 아딧(Arthit Kamlangek)소장, 한 소장, 차왈릿(Chaovalit Yongchaiyuth)소장 등과 합세해 쿠데타를 분쇄했다. 81년 쿠데타에서 영터크스는 육군부사령관인 썬(Sant Jitpatima)장군을 쿠데타의 지도자로 삼아 1군사령관이었던 와썬(Wasin Issalangkun)중장의 지지를 얻어냈으며 주로 1군을 동원하여 방콕전역을 장악했다. 태국의 1군은 수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부대로서 과거 쿠데타에서 1군은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영터크스는 1군의 지휘 하에 있는

1) 66/2523과 66/2525는 1980년과 82년에 각각 발표된 수상령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력이 아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했다. 이는 일종의 정치적 공세전략이었으며 군의 정치개입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었다.

3개 연대 중 2개 연대의 연대장을 맡고 있었다(Chai-Anan 1982: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경쟁 파벌들의 견제로 쿠데타는 실패했다.

1985년 쿠데타는 권력의 공백기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당시 국왕과 왕비는 태국남부지방에 거주했고 황태자는 이태리, 뵤렘수상은 인도네시아, 육군사령관겸 최고사령관인 아딧은 스웨덴에 머물고 있었다(Sinsawat 1996: 174-175). 아딧은 즉시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진압명령을 내렸는데 5기 세력은 쿠데타 분쇄에 앞장섰다. 군부가 분열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성공 확률이 높았던 쿠데타였다.

5기 세력은 1986년 차왈릿이 육군 사령관이 된 후 주요 요직에 앉게 되었으며 군, 경찰, 관료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던 중 199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5기가 주도한 1991년 2월 쿠데타의 원인 중 하나는 당시의 찻차이 수상이 영터크스의 중심 인물로 1981, 1985년 쿠데타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육사 5기의 기피인물인 마논(Manoon Roopkachorn)을 수상의 군사 보좌관에 임명하면서 연유했다. 실제로 이번 쿠데타 주동자 중의 한 명인 까셋(Kaset Rojananin)공군 사령관은 쿠데타의 원인을 영터크스가 1981년 일으킨 쿠데타 진압을 놓고 벌인 육사 5기와의 갈등에서 연유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영터크스와 민주주의 군은 각각 째렁(Chamlong Srimuang)과 차왈릿을 통해서 정당을 만들어 정치세력화 되어 정치적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째렁은 1988년 팔랑탐 당(Phalang Dharma Party)을 만들었으며 차왈릿은 1990년 콰왕마이당(New Aspiration Party)을 만들었다.

2. 군에 대한 문민통제

여기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은 어떤 종류의 정치개입을 시도했으며 민간정부는 어떻게 군을 통제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나를 살펴 볼 것이다.

1) 뷁렘 정권과 만-군 관계

뷔렘 정권 들어서 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개입을 시도했다. 정치개입 시도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현상이었으나 군의 분열과 문민통제의 강화로 모두 실패했다.

태국군의 가장 전형적 정치개입 방법인 쿠데타가 1981년과 1985년 두 차례 발생했다. 그러나 쿠데타는 앞에서 언급한 바같이 군부의 분열로 실패에 그쳤다. 군의 정치개입은 쿠데타 뿐 아니라 헌법개정과 바트화 평가절하 반대 등과 같은 정부정책에의 개입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1983년 군은 헌법개정운동을 주도했다. 1978년 헌법의 유보조항에는 군과 민간관료들이 한시적으로 수상과 내각직을 맡을 수 있으며 군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이 의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의 효력은 1983년까지였다. 군은 헌법개정을 통해 유보조항을 유지하려 했지만 의회내 헌법개정안 통과는 무산되었다. 이후에도 군은 다시 헌법개정 문제를 거론했으나(85, 87년) 매번 의회 내 ·외의 반대로 실패했다. 1984년 뷁렘정부의 바트화 평가절하정책에 대해서도 아딧 육군사령관이 주도하는 군부는 반대했으나 실패에 그쳤다.

1980년대 들어서 군의 새로운 정치개입 방식이 나타났다. 군은 정당정치的重要性을 인식하여 기존 정당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했다. 물론 과거에 피분, 싸릿, 타넘 등도 각각 싸하팍당(United Party, 1948-51년), 쉐리마낭카 쉐라당(Serimanangkhasila Party, 1955-57년), 싸하품당(Unionist Party, 1957년), 찻쌍콤당(National Socialist Party, 1957년), 싸하쁘라차타이당(United Thai People Party, 1969-71년) 등을 만들었으나 대부분은 선거 후 의회 내 정치인을 규합해 만든 것이었다(김홍구 1996: 59). 그러나 이 시기에 군부 지도자들이 만든 정당은 대중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다.

뷔렘을 지지했던 몇몇 군 지도층 인사들은 퇴역 후 정당에 참여해 뷁렘이 이끄는 연립정부에 안정감을 더 해 주었다. 1984년 뷁렘의 오랜 군사 보좌관 한 장군은 뿌라차티뻏당에 입당해 1986년 선거를 치렀다. 티엔차이 장군(Thienchai)은 랏싸던당(Rassadorn Party)을 창당해 86년 선거에서 18석을 얻고

연립정부에 합류했다(Phongpaichit et al. 1995: 346).

한편 쁘렘 이전에 수상을 지낸 바 있는 끄리양삭은 찻쁘라차티빠따이당(Chat Prachatipatai Party)을 만들어 1983년 선거에 참여했다. 쁘렘과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던 아딧 육군사령관은 1986년 군에서 물러난 후 뿌엥춘차우타이당(Puang Chon Chao Thai Party)을 만들었다. 영터크스 출신인 째렁은 1987년 방콕 시장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88년에는 팔랑탐 당(Phalang Dharma Party)을 만들었다. 아딧에 이어 육군사령관을 지낸 차왈릿은 1989년 캄왕마이당(New Aspiration Party)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쁘렘 정권의 군 통제 방식은 당근과 채찍 정책이었다. 육군사령관 출신인 쁘렘 수상은 군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성공할 수 있었다. 쁘렘은 정기적으로 퇴역 군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재무, 내무부 장관에는 관료나 군 인사를 임명하는 등 군을 배려했다. 쁘렘은 1983년 군의 헌법개정운동에 반대했으나 개정안의 의회 통과가 무산된 후 군을 달래기 위해 구 헌법 하에서 새로운 선거가 가능케 하도록 1983년 4월 18일 의회를 해산했다.²⁾ 이 같이 쁘렘은 군을 달래는 한편 두 차례의 쿠데타를 진압하였고 그의 잠재적인 정치적 라이벌인 아딧의 정년연장 1년 요구에는 응했으나 1986년 초부터 또 한차례의 연장시도가 있자 그 해 5월 25일 전격적으로 그를 육군 사령관직에서 해임하기도 했다.

2) 찻차이 정권과 만-군 관계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을 지지세력으로 하여 출범한 찻차이 정권은 쁘렘 정권 때와는 달리 사사건건 군부와 갈등관계를 빚었다. 찻차이 정권은 노골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시도하려 했으며 군은 이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시켰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군부의 기존 이익-내각직, 상원의

2) 이 날짜에 쁘렘이 의회를 해산한 이유는 1979년 출범한 의회의 4년 임기가 1983년 4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4월 22일 이전에 선거를 치르면 1978년 헌법의 유보조항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권한에 대한 손상 뿐 아니라 자율성·군 예산과 진급, 임면권 등·까지도 훼손시켜 군의 불만을 야기 시켰다.

1990년 6월 부수상겸 국방부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던 차왈릿 사임 후 찻차이 정권과 군부와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차왈릿은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입각했으나 수상청 장관 찰름(Chalerm Yoobamrung)이 제기한 부정부패 스캔들로 사임하게 됨으로써 군부는 큰 불만을 가졌다. 또한 같은 달에 국회에서는 군부가 지배하는 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법안(Social Security Bill)이 통과되어 결과적으로는 임명직 상원의 권한이 도전 받음으로써 군부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90년 7월에는 수상청장관 찰름이 관장하는 TV채널 9 소유의 이동방송차³⁾가 쉐턴(Sunthorn Kongsomphong)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의해 군부에 압수되었다. 군부는 찰름의 각료직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⁴⁾ 뿐만 아니라 찻차이 수상은 군부견제를 노골적으로 시도하여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육사 5기의 기피인물인 마눈을 복권시켜 군사보좌관에 임명했으며 아딧을 부수상 겸 국방부차관에 임명했다.

마눈은 영터크스(Young Turks)로 불리는 육사 7기의 지도자이며 81, 85년 두차례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82년 정부요인 암살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었다고 알려진 인물로 군부는 그의 복권을 반대했었다. 또한 아딧은 영터크스의 복권에 찬성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육사 5기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로서 군부는 그가 누구보다 군 내막을 잘 알고 있으며 군예산 편성과 승급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군부의 자율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구심을 품었다. 또한 군부의 자율성을 손상시킨 사건은 쉐턴다 육군사령관의 해임가능성 풍문이었다. 쿠데타 당일 찻차이 수상은 아딧 국방부차관과 함께

3) 이동방송차는 군부의 동향을 감시하는 임무를 띠었다고 알려진다.

4) 찰름은 사실상 찻차이 수상의 정치참모로 알려졌으며 군부에 대한 비난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는 1990년 8월 단행된 개각에서 사임되지 않았으며 11월 개각에서는 문교부차관으로 전보 발령됨으로써 군부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국왕을 알현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 기회에 국왕에게 이들의 해임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되었다. 82년 요인암살 미수사건 수사책임자였던 육사 5기 출신의 분추(Boonchu) 경찰총장을 전보 발령시킨 사건도 군부의 고유의 자율성을 손상시킨 사건으로서 쿠데타의 주요요인이 되었다.

의회의 군 문제에 관한 노골적인 개입도 군의 불만요인이 되었다. 1989년 의회는 처음으로 군 예산을 삭감했다. 의회는 군 예산의 사용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1990년 예산심의위원회는 군 예산을 상징적으로 삭감하고 군의 비밀자금예산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내각은 군의 새로운 정보센터 건립계획을 거부했다. 의원들은 군 병력의 전반적인 삭감을 주장했다. 1991년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군 인원 감축, 예산 삭감, 무기 구입 중개인과 독점체제 제거 등의 주장이 있었다. 감사원은 무기구입 감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은 군 예산을 삭감해 개발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Phongpaichit et al. 1995: 351).

이상과 같이 전례 없는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에 반발한 군은 1991년 2월 육사 5기 세력 주도로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정치개입 방식을 사용해 찻차이 정권을 붕괴시켰다. 이번 쿠데타에는 육군 뿐 아니라 해군, 공군, 경찰까지 합세했다. 육군은 81, 85년 두 차례의 불발 쿠데타와 달리 5기 중심으로 단결되어 있었다. 쿠데타 후 최고사령관 쏘턴(Sunthon Kongsomphong)과 육군사령관 쉐찐다(Suchinda Kraprayoon)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하는 국가평화유지위원회(NPKC: National Peace Keeping Council)는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한 후 새 헌법 제정을 위한 입법의회를 구성하고 직업외교관 출신인 아난(Anand Panyarachoon) 과도내각을 출범시켰다.

한편 NPKC는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질 선거를 대비해서는 정당의 중요성을 인식해 군부정당인 싸막키타당(Samakkhitham Party)을 만들고 1991년 말에는 헌법 초안작성 작업에 개입해 군의 지속적 정치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유보조항을 두도록 했다. 유보조항은 수상을 의회 밖에서 뽑을 수 있으며 임명 상원의 권한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헌법에 따라 1992년 3월 선

거가 치러지고 선거 후 싸막키타당(Samakkhitham Party)이 제1당이 되었으며 쑤찐다가 수상에 임명되었다. 한편 쑤찐다가 수상에 임명된 후 그의 수상임명과 정치개입억속 번의에 반대하는 이른바 5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 쑤찐다는 수상의 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3) 1992년 5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군 관계

1992년 5월 민주화 운동 이후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 과도내각 수상에 재차 임명된 아난 수상은 5월 민주화 운동 발발시의 진압 책임자들을 한직으로 보직 변경시키고 국내평화유지사령부(Internal Peace Keeping Command)와 수도보안사령부(Capital Security Command)를 해체하는 등 군 개혁작업을 실시했다. 또 군 인사의 국영기업체 사장이나 이사회 참여를 금지시켰다. 1991년 헌법을 개정하여 수상의 선출을 의무화하였고, 상원의 권한을 축소시킴으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한편 1992년 5월 민주화운동 후 군은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 군은 과거 보다 훨씬 직업주의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군인의 수는 감축되고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도 개편되었다. 아난과 추언 정권 하에서 군 보직변경 등의 인사이동을 통해 직업군인들이 중요 요직에 앉게 되었다. 특히 육사 8기와 12기 장교들은 보다 직업주의화되고 군의 이미지와 정통성 훼손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군의 생존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정치에의 직접 개입을 피하고 군의 정당한 역할과 집단 이익의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Bunte 2001: 205).

군의 정치적 중립의지는 군 주요 인사들의 언급에서 나타나고 있다. 1992년 9월 13일 선거 후 구성된 추언 수상의 빠라차티빳당 정권 하에서 육군사령관에 임명된 위몬(Wimol Wongwanich) 장군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약속했다(FEER 1996/01/18, 22). 췌(Chetta Thanajaro) 장군은 추언 정권과 간밀하게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군인들은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정부 구성에 어떤 개입도 하지 말고 어떤 비난도 하지 말아야 한

다. …… 쿠데타는 구식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쓸모 없이 될 것이다”(The Nation 1998/02/21, 1). 1996년 1월 3일 위룻(Viroj Saengsanit)최고 사령관은 “정치적 문제들은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군은 고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헌법통과에 대한 국민적 압력이 극에 달했을 때 콰왕마이당 정부는 군을 동원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자 했으나 군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1996년까지 상원은 군이 지배했으며 64%가 전직 군인이었다(Bunte 2001, 206).⁵⁾ 또 군부는 정치 이외의 분야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와의 국경위원회(border committees) 장을 맡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정책수립에 관여한다. 또한 군은 벌목, 광산사업, 지방의 골프장과 관광단지 조성계획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FEER 1996/01/18, 20-21). 군은 아직까지 타이군인은행(Thai Military Bank)의 대주주이며 TV 채널 2개와 200 여 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

Ⅲ. 비관료세력들의 정치적 역할과 문제점

앞장에서는 1980년 이후 군 내부의 파벌주의와 분열, 그리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강화가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탈군부권위주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관료세력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원인을 그들의 정치적 역할을 통해 파악해 볼 것이다. 비관료세력들은 1980년대 이후 과거와 달리 활발한 정치적 역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켜나갔다.

5) 1997년에는 그 비율이 19%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1. 기업가

1) 기업가들의 정치세력화

기업가 계층은 1980년대 이후 태국 정치변동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태국의 경제는 1970년대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7~8%의 높은 실질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1980년대 접어들면서 기존의 수입대체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기반으로 외자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988년부터 90년 사이에는 두 자리 숫자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성장한 기업가 계층은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과거의 태국 관료지배체제 하에서 관료체제의 정치체제 지배현상은 관료의 내각 및 의회의 참여비율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었다. 태국의 군과 민간관료는 내각과 의회를 지배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1980년대 후 썬람(Prem Tinsulanonda)정권 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각료직과 의회에서 차지하는 비관료, 특히 기업가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그들은 점차 정치세력화 되었다. 1988년 출범한 차차이(Chatichai Chunhavan) 문민정권의 1차 내각에서 차지하는 기업가의 비율은 무려 73.3%에 이르렀다(김홍구 1996, 46).

이처럼 기업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자 썬람은 1981년에 정부민간합동협의회(The Joint Public and Private Consultative Committee: JPPCC)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수상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과 금융, 산업, 통상단체 대표들이 소속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간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만들어짐으로써 기업인들이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기업가들은 과거에도 비관료세력 중에는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나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관료체제와의 후견-의존관계의 틀 속에서 통제를 받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태국의 기업가 그룹은 크게 세 부류-방콕을 기반으로 하는 부류,⁶⁾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부류, 1980년 말에서 1990년대 대동한 비즈니스 엘리트(new capitalists, new era political actors)⁷⁾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1980년대 이후 가장 활발한 정치적 역할을 한 부류는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가 부류들이었다.

태국의 지방 기업가들은 1960년대부터 미군 기지 주변에서 현금작물을 재배하여 사업의 기틀을 잡았다. 그들은 쌀과 카사바 재배에 용자를 받고 농산물 가공무역을 시작했다. 그 후 사업적 영역을 넓혀 소매업, 운송업, 부동산 개발, 직물공업 등에 종사했다. 일부는 도박, 마약, 유흥업 등에도 손을 댔다. 또 지역 군 사령관 및 관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불법 벌목과 밀수 등도 했다. 이들 지방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1980년대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게 되었는데 특히 금융, 무역, 새로운 작물가공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Case 2002: 156-157).

2) 정치적 역할과 문제점

지역의 짜오 퍼(jao pho, local bossr)또는 이티폰 뭇(itthiphon meut, dark influences)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던 지방기업가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 들었다. 그들의 정치적 역할은 지역단위의 지방선거나 국회

- 6) 제2차 세계대전 후 태국에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급증했다. 싸릿 정권때 중국인들은 주로 은행, 농업, 광산업에 종사했으며 이후 고무, 쌀, 타피오카, 주석 등을 수출했다. 1960-70년대에는 상품수출과 음식가공 사업에서 소비 비내구재인 직물과 단순한 기구 생산을 하게 되었다. 태국의 경우는 국가개입의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강화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내시장 보호정책이 추진되어서 국내사업이 급속히 팽창하여 방콕에 기반을 둔 대기업이 출현했다.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력과 자치성을 확보해 1970년대 정당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 7) 1980년 말에서 1990년대 일단의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탄생하게 되는 데 이들은 방콕의 증권 시장 붐, 부동산,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업 번창의 와중에서 구 은행, 상품 수출, 제조업 자와는 독립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새로운 금융 회사, 부동산 개발업,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했다.

의원 선거에 스스로 출마하거나 또는 그들과 후견-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이었다. 태국 전체 지역구의 90%는 방콕 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기업가들이 손쉽게 하원을 지배하게 되었다.

태국정치에서 의회의 중요성이 부각된 1975년 이후 치러진 총선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의 약 80% 이상이 지방에서 선출된 자들이었다. 1986년 선거(총 347석)에서는 22석만 방콕 출신들이 장악했다. 1990년 2,046명의 지방의회 의원과 1,842명의 읍(town) 의원 62%의 직업적 배경은 비즈니스나 무역이었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그들은 주요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얻고 지방개발자금과 인프라 계약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Phongpaichit et al. 1995: 336-337).

지방 기업가 출신들은 깃쌍콤당(Social Action Party), 찻타이 당(Thai National Party), 뽀라차티뻏당(Democrat Party)등 주요 정당에서도 주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정당은 깃쌍콤당과 찻타이당이다. 깃쌍콤당에는 나롱(Narong Wongwan), 타농(Thanong Siririchapong), 몬뜨리(Montri Pongpanich)등이 영입되었다. 기업가 당이라고 일컫던 찻타이 당(Thai National Party)에는 “움직이는 현금인출기(mobile ATM)”로 불릴 만큼 막강한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쑤판부리(Suphanburi) 출신의 반한(Banharn Silpa-archa)이 참여했다.

지방출신 기업가들의 정치참여는 자생력을 갖는 새로운 정치참여세력이 출현함으로써 관료지배체제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정치적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그들은 의회선거를 지방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방콕 권력층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했으며 개인의 이해와 지역구 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자금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각료직을 얻는 것이다. 당을 선택할 때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가, 어떤 당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각료직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가를 저울질한다. 어떤 자들은 여러 당에 걸쳐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지지하기까지 한다. 선거 후 많은 의원

들은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각료직을 획득하기 위해 당을 바꾸게 된다. 이같이 각료직에 집착하는 이유는 커미션이나 각종 뇌물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금권정치를 조장하는 핵심세력으로 지목 받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방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의 부정적인 정치적 행태 때문에 1991년 쿠데타 후 깃쌍콩당의 몬뜨리가 NPKC로부터 부정축재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은 외에 260 명의 짜오 퍼(jao phor)들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Phongpaichit, et al. 1995: 357).

2. 시민사회운동세력

1)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정치화

태국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수동성, 전통적인 사회 계서제도와 갈등을 회피하려는 문화 등은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것이었다(Mulder 1996: 35). 더우기 농업을 생업으로 삼았던 전통적인 태국사회는 낮은 수준의 동원(mobilization)과 조직(organization), 엄격한 국가통제로 특징 지워져 왔다. 이런 이유로 수세기 동안 시민사회영역의 일들을 맡았던 유일한 조직은 사원 뿐 이었는데 사원은 마을 공동체에서 빈자를 돕는 박애주의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Hewison 1996: 75).

1932년 입헌혁명 이후에도 40여 년 간 태국은 군부가 지배하는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발전은 점차로 이런 사회·문화적 환경을 변화시켜 나갔다. 경제발전의 결과 중산층과 전문직이 확대되었으며 시민조직과 NGO들이 다수 출현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증가한 도시중산층은 방콕의 경우 1960년에 178,000명에 불과했으나 1970년에는 284,000명, 그리고 86년에는 도시 인구의 31%인 180만 명으로 증가했다(Asian Survey 1993/09: 884).

1973년 학생혁명은 시민사회운동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치영역

에서 군부의 배타적인 지위가 약화됨에 따라 시민사회운동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조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은 특히 1980년대 들어서 그 영역이 대폭 확대되어 갔다. 경제성장에 따른 정치, 사회개혁운동 뿐 아니라 농촌개발운동과 환경보호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는 NGO들이 다수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조직들은 실제로 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했다. 시민사회는 의회나 기업가조직에서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그룹들의 이익표출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NGO들은 공동체 집단, PO(People's Organization)를 연결해 정당, 노동조합, 농민조직들의 대중적 지지 확대 능력 부재로 인한 공백을 메꾸게 되었다. 비록 강력한 사회적 기반은 부족했으나 NGO운동은 정치사회 개혁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주도의 개발전략에서 기인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문제, 여성운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동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큰 기여를 했다.

2) 정치적 역할과 문제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대표적인 정치적 역할을 한 시민사회운동세력은 대중민주주의운동(CPD; the Campaign for Popular Democracy)⁸⁾ 이었다. CPD는 1981년 만들어졌으며 군부가 1978년 헌법의 유보조항을 유지하기 위해 1983년 헌법개정을 시도하려 했을 때 반대투쟁에 나섰다. 군부의 헌법개정 시도가 실패에 그치고 나서 CPD는 일단 해산되었다가 1991년 2월 쿠데타가 발생하자 재조직되었다. CPD는 태국학생연합(SFT; the Student Federation of Thailand), 노조 등과 함께 쿠데타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쿠데타 후 군부정권이 임명직 수상제 유지, NPKC가 임명한 상원의 권한 강화 등과 같은 군부 독재를 강화 시켜주는 헌법 초안을 작성했을 때 CPD와 SFT는 새 헌

8) CPD는 태국 최초의 정치단체로 등록되었다. 일반적으로 태국의 NGO들은 국가간섭을 우려해 등록을 회피한다.

법 초안에 반대하여 반 NPKC의 선봉에 섰다.

CPD는 쿠데타 후 최초로 치러질 선거를 위해서 1992년 1월 과도내각의 아난 수상이 선거 감시단(Poll Watch)을 구성했을 때도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했다. 선거가 치러진 후 쿠데타를 일으킨 쑤짚다가 최초의 약속을 깨고 수상에 임명되었을 때 CPD는 SFT등과 함께 집회를 조직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방콕 뿐 아니라 지방까지 민주화 운동을 확산시켰다(Callahan 1995, 106).

이른바 5월 민주화 운동은 태국 근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유혈사태를 초래했지만 시민단체가 주도해 군부정권을 퇴진시키고 문민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세운 획기적 사건이기도 했다. 또 5월 민주화 운동은 중산층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5월 17일 싸남루영에 모인 20만명의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태국 사회과학협회(the Social Science Association)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참가자 대부분은 30대, 기혼, 자영업, 회사원, 교육 정도가 높고 수입이 좋은 계층에 속했다. 언론에서는 그들을 “이동전화를 휴대한 대중(mobile phone mob)”이라고 이름 붙였다(Phongpaichit et al. 1995: 358).

한편 5월 민주화 운동 이후 92년 9월 선거가 치러지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정치·경제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점증하게 되었다. 시민사회 운동세력은 정부에 헌법개정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압력에 직면해 정부는 헌법초안회의(CDA; Constitution Drafting Assembly)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 CDA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하되 각 도를 대표하는 76명의 위원, 정치학자와 행정가 8명, 법률전문가 8명, 헌법초안 작성 경험자 7명으로 구성되었다(Phongsapich 1999: 328).

시민사회운동세력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도 주도했다. 1997년 7월 외환위기에 이은 경제위기가 덮치면서 태국의 경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 이전부터 경제문제가 이슈가 되어 90년대 경제성장 기간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주도의 시위가 특히 지방에서부터 활성화되었다. 통계적으로 1988년 170차례의 데모와 군중시위가

발생했던데 비해 1993년과 1994년 시위는 739 차례와 754 차례나 발생했다. 1995년 많은 NGO들이 공조해 “빈자들의 연합(the Assembly of the Poor)”을 만들었다. 이 기구는 가장 의미 있는 NGO 연합체로 발전했다. 그리고 1996년 3월과 4월 사이 이 기구는 방콕 시위에서 수천명의 시위대를 동원했다. 이 기구의 지지층은 동북부 소규모 농민들이었으나 그들의 관심은 광범위한 것으로 도시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96년 이 기구는 반한 정부로부터 토지 전유 등을 보상한다는데 원칙적 동의를 얻게 된다. 1997년 초 발생한 3개월 동안의 야영으로 그들은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뒤이은 차왈릿 정부도 댐과 산업용지 훼손에 따른 46억 바트 보상, 삼림운용에 대한 지방 권리를 확인하는 법제화, 직업병 보호를 보장하는 법제화 등 그들의 관심사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Phongsapich 1999: 327).

1997년 경제위기가 다가왔을 때 시민사회에 대한 경제위기의 영향은 복잡적이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경제위기는 CDA가 제안한 헌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기여했다. 1997년 초까지만 해도 헌법개정에 대한 의회의 지지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집권여당을 주도한 캄왕마이당의 차왈릿과 그의 측근들은 CDA의 제안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CDA가 1997년 5월 신헌법의 초안을 발표했을 때 캄왕마이 당 소속 싸노(Sanoh Thienthong)내무부장관은 내무부 관할에 있던 지방의 촌장들을 동원하여 신 헌법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사실상 신 헌법안에 대해 가장 큰 비난을 한 것은 상원과 정치인, 관료들이었다. 그들은 권력분권화와 헌법상의 의무조항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했으나 CDA의 헌법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의 적극적 지지와 경제위기로 야기된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이 오히려 자극이 되어 헌법개정안은 9월 27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찬성 518표, 반대 16표, 기권 17표로 통과되었다(Phongsapich 1999: 330).

경제위기 이후에도 태국 시민사회운동세력은 정치·경제개혁의 선두에 서 있으나 그 문제점도 간혹 조직 내부에서 지적되고 있다. 태국 사회의 전통적인 이익표출 방식인 후원-의존관계는 시민사회운동세력 내에도 존속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태국의 NGO나 노동조합의 이익표출의 지배적인 형태는 여전히 사인주의(personalism)나 상하관계(clientelism)적 특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참여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Bunte 2001: 212).

3. 정당

1) 정당정치의 강화노력

태국에는 1932년 입헌혁명 후 1980년 이전까지 군사 쿠데타가 빈번히 발생하고 정치체제가 관료체제에 종속됨으로써 정당이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980년을 전후하여 정당정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났다. 1978년 헌법과 1981년 정당법을 통해 나타난 이런 노력들은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1978년 4월 22일의 헌법(91년 2월 쿠데타 발발 이전까지 사용했던 헌법)은 상하양원제를 채택하고 상원은 임명직으로 규정했다. 또 군과 민간관료들로 구성되는 상원의 권한을 감소시켰다. 1932년 입헌혁명 후 임명직 의원제도는 의회내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관료체제 특히 군부세력에 의해 유지됨으로써 태국에는 국민 대의적 성격을 띤 정치기구로서의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관료체제에 종속되어었다. 임명직 의원제도의 존속 및 권한의 정도를 둘러싸고 32년 이후 쿠데타와 헌법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78년 헌법에서 비록 임명직 상원제도는 유지시켰지만 그 권한을 감소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당 소속 직선 하원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게 되었다.

또 1978년 헌법은 무소속 출마를 금지시키고 정당난립을 방지해 다당제로 인한 정치불안을 불식시키고 대정당을 육성하고자 했다. 다당제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전형적인 선거는 1975년 1월 26일 총선이었다. 무려 42개 정당이 출마했으며 의석수를 얻은 정당의 수도 무려 23개 정당이나 되었다. 제 1당이 차지한 의석 비율은 26.77%였다. 그래서 78년 헌법은 “하원의원 입

후보자는 정당 소속이어야 하고(94조), 입후보자 공천권이 있는 정당은 선거에서 총의석수의 반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95조). “의원이 탈당하거나 자신이 속한 정당으로부터 출당 당하면 자동적으로 의원자격을 상실 당한다(10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기존정당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81년 7월 8일에는 새로운 정당법(4차)이 제정되었다. 이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등록을 위하여 적어도 1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태국의 4개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최소 5개 도에서 5000명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며 각도에서는 최소 50명 이상의 당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은 하원 총 의석수의 과반수 이상을 출마시켜야 했으며 무소속의 출마는 금지되었다(김홍구 1996: 56).

2) 정치적 역할과 문제점

1980년 이후 태국에는 81, 85년 두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으나 불발로 그치고 헌정중단 사태 없이 83년 4월, 86년 7월, 88년 7월 3 차례의 선거가 치러졌다. 1990년대 들어 91년 한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쿠데타는 80년을 전후하여 지속되어 온 정당정치 강화 노력에 위협이 되는 듯했으나 군은 이미 정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쿠데타 후 군은 싸막기탐당을 만들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다. 1992년 5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 92년 3월, 92년 9월, 95년 7월, 96년 11월 모두 4차례의 선거가 치러졌다. 1980년 이후 기간 중 모두 7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태국 정당들의 가장 중요했던 정치적 역할은 정당정치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었다.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쿠데타는 정권교체의 수단이 되지 못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하면서 정당과 의회활동은 제도화되어 갔다. 정치 엘리트들의 자발적인 정당정치 참여 증가, 정당의 의회에서의 역할 증대, 정책개발 기능의 제고, 시민사회 성장과 정치참여 폭의 확대현상으로 대중 정당으로서의 지지기반도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정당은 결정적 시기에 충분한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당과 의회정치의 문제점은 오히려

려 1981년 쿠데타와 1991년 쿠데타의 명분을 제공했으며 정당은 1992년 5월 민주화 운동이나 1997년 헌법개정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80년 이후 정당정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태국 정당의 다당제적 성격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 같이 정당정치 강화의 목적으로 1978년 헌법과 1981년 정당법이 제정되었으나 다당제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으며 정당난립과 다당제로 인한 정치 불안 등의 문제점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1981년 정당법에 따라 치러진 최초의 선거인 86년 7월 27일 선거에 15개 정당(제 1당인 뿌라차티뻏당 28.82%의 의석수 확보), 88년 7월 24일 선거에 15개 정당(차타이당 24.37%), 92년 3월 22일 선거에 11개 정당(싸막키 탐당 21.94%), 92년 9월 선거에 11개 정당(뿌라차티뻏당 21.94%), 95년 7월 2일 선거에 11개 정당(차타이당 23.53%), 96년 11월 17일 선거에 11개 정당(콰왕마이당 31.81%)이 의석을 확보하여 의회에 진출하였다. 어떤 정당도 의회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김홍구 1996: 57-58; 이병도 2000: 67-86).

둘째, 각료직 분배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하는 잦은 탈당현상도 여전했다. 1988년 신헌정권이 붕괴된 이유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신헌은 88년 4월 의회를 해산했다. 그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뿌라차티뻏당 당수인 피차이 랫따꾼이 국회의원인 자기의 아들을 뿌라차티뻏당 몫의 각료로 천거한 데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불만을 갖았던 비주류 그룹(끌롭썩똥까콤. 1월 10일 그룹)은 정부가 저작권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3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법률안 통과를 부결시켰다. 이 사건 후 의회가 해산되자 그들은 탈당해 뿌라차촌 당을 창당했다(이병도 2000: 69).

셋째, 태국정당은 파벌주의가 만연했다. 태국정당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개인 이해를 좇아 구성된 여러 개의 파벌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인이나 파벌집단의 이익이 보장되지 못할 때 당명에 쉽게 불복하여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탈당과 창당이 빈번히 이루어져 정당의 제도화를 가로막는다.

1986년 7월 27일 선거를 앞두고 깃쌍콤당은 보궐선거 패배로 인해 크룽이 당수직을 사임하고 췌이 대신 당수직에 올랐다. 췌이의 당수직 계승은 당 내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후 깃쌍콤당 창당의 주요 인물이자 부당수와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분추(Bunchu Rachanasatien)는 탈당하여 깃쁘라차콤당(Community Action Party)을 창당했다. 깃쌍콤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탈당하여 싸하쁘라차티빠이당(United Democracy Party)을 창당했다.

정당의 무이념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근한 예는 찻타이 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찻타이당은 1991년 1월 쿠데타로 실각했으나 1992년 3월 22일 총선 후 친군부정당인 싸막키타당(Samakki Tham Party)과 함께 연합내각을 구성했다. 또 군에 의해 축출되었던 찻타이당의 당수 찻차이는 1992년 9월 선거를 앞두고 찻팍타나 당을 만들었는데 싸막키타당 소속의원들을 합류시키기도 했다.

넷째, 태국의 정당은 주로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해 운영되거나(명사정당) 특별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도자나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쉽게 당 세가 약화되고 심지어는 당 자체가 없어지기도 한다. 1979년 4월(82석)과 1983년 4월(92석)선거를 통해서 제 1당이 되어 연립정부를 주도했던 크룽의 깃쌍콤당은 1986년 당 내분으로 크룽이 당을 떠난 후 1992년 3월 선거에서 31석을 얻어 제 6당에 머물렀으며 그 후 당세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짬렁의 팔랑탐당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992년 민주화항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해 9월 선거에서 47석을 획득한 팔랑탐당은 당내 파쟁으로 짬렁이 당을 떠난 후 치른 1995년 선거에서 23석, 1996년 11월 선거에서 단지 1석만을 획득하게 되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싸막키타당이다. 이당은 1991년 쿠데타 후 군부세력이 의회를 통한 권력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1992년 5월 민주화 운동으로 군부정권이 붕괴된 후 해체되었다(윤진표 2001: 107).

다섯째, 태국 정당정치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금권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5년 7월과 1996년 7월에 치러진 선거는 심각한 금권, 타락선거였다. 1995

년 7월의 선거기간 동안 사용된 자금은 170억 바트(약 7억 달러)에 달했으며 1996년 7월 총선에서 입후보자들이 사용한 자금은 약 200억 바트(태국농업은행 추산)에 달했다. 이에 따르면 96년 선거에 출마한 2, 310명의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 법정 최고 액수인 100만바트의 9배에 달하는 약 900만 바트씩을 쓴 셈이다. 선거감시단은 총 5, 512건의 비정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대부분은 유권자 매수사건이었다. 결국 태국은 경제가 위기의 국면에 접어들어 시점에 역사상 가장 비싼 선거를 치른 셈이었다(송경아 2000: 37).

마지막으로 태국 정당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지역주의 현상의 심화이다. 찻타이당은 중부 태국을 기반으로 하며, 찻팻타나당은 북부, 람왕마이당은 동북부, 뿌라차티뻬당은 남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당의 지역주의 경향은 연립정부내의 정책적 갈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 시키게 될 뿐 아니라 전국적인 강력한 정당체제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내무부로 하여금 지방분권화에 반대하는 구실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92년 9월 선거 결과 뿌라차티뻬당은 남부에서 36석(총 79석), 찻팻타나당은 북부에서 21석(총 60석), 찻타이당은 중부에서 38석(총 77석), 람왕마이당은 동북부에서 31석(총 51석)을 차지했다. 96년 1월 선거결과 민주당은 남부 47석(총 123석), 찻팻타나당 북부 20석(총 52석), 찻타이당 중부 28석(총 39석), 람왕마이당은 동북부에서 78석(총 125석) 을 차지했다(김홍구 1996: 62; 이병도 2000: 165).

IV.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와 정치적 역할

1980년 이후 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되고 비관료세력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증대하는 탈군부권위주의 정치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군과 비관료세력들간의 대립으로 몇 차례의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다. 이 위기 시 현재의 푸미폰 국왕은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어느

한 편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어 정치변동의 방향이 정해졌다. 이 장에서는 초정치적(above politics) 위치에 있는 입헌군주 푸미폰 국왕이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 국왕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였나 를 살펴 볼 것이다.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태국 정치변동의 양상을 특징짓는 고유의 요인이 되고 있다.

1.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

입헌군주인 푸미폰 국왕의 정치적 역할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그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개인적 자질을 전제로 하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치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김홍구 1998: 91-94).

우선 태국의 입헌군주인 푸미폰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1932년 입헌 혁명 후 절대군주제의 전통적 정치체제가 붕괴되고 도입된 입헌군주제의 이성적, 법적 지배의 정통성이 취약한 정치적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정치적 역할을 시작했던 시기는 싸릿 정권 때부터였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싸릿은 군사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전통적 가치를 발굴해 보강하려 했다. 그래서 그는 “국왕, 종교(불교), 국가”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국가 이데올로기(Lak Thai, Thai Principles)를 발굴하여 지지하게 되었으며 국왕의 정치적 중요성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싸릿 정권 이전 피분 정권 하에서 국왕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싸릿의 국왕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 국왕은 내심 고맙게 생각하면서 싸릿 정권을 지지하는 한편 그 기회를 이용해 입헌군주의 역할을 공고화 시켜 나갔다.

푸미폰 국왕의 정치적 역할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은 그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자질이였다. 이 자질은 불교도 왕인 탐마라차(Thammaraja)로서의 자질이다. 태국국민들은 전통적으로 불교도 왕인 탐마라차의 자질을 갖춘 국왕들을 신뢰해 왔으며 그 카리스마에 복종해 왔다. 태국의 고대법전인 프라탐

마삿 (Phra Thammasat)에 의하면 탐마라치는 시법(十法, Thosapitradhamma)을 준수할 때만이 국왕으로서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시법은 국왕이 이상적으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통치덕목을 언급한 것으로 보시(布施, dana), 지계(持戒, sila), 희생(pariccaga), 공정(ajjava), 온화(madd-ava), 노력(tapo), 불노(不怒, akkodha), 불해(不害, avihimsa), 인내(khanti), 불역(不逆, avirodhana)등을 내용으로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법에 따라 정의롭게 통치하는 왕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여기고 그를 탐마라차라고 불렀다. 따라서 탐마라치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갖게 되며 법을 거슬러서 불법을 저지르는 왕은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 당하며 이러한 왕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일은 정당화되기도 했다.

푸미폰 국왕은 법의 가르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역사상 태국의 모든 탐마라차가 행한 바대로 단기간의 승려생활을 경험했다. 이후 그는 텃까던 의식(Kathin Ceremony)을 비롯해 불교 행사에 참여해 행사를 주재하고 공덕을 쌓음으로써 대다수가 불교도인 태국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는 탐마라차라는 인식을 뚜렷이 심어 주는 데 성공했다.

불교도 왕인 탐마라차로서의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보강되어 왔다. 우선 오늘날 태국의 유일한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정당성을 갖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개념의 국가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또 국왕의 카리스마는 태국의 총 56개도, 4000개 부락에서 1300개 이상 추진 중인 국왕개발계획(Royal Development Projects)을 통해 강화되었다. 국왕은 국왕개발계획을 통하여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카리스마를 갖게 되었다.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도 강화되고 있다. 태국헌법 6조는 국왕은 지존의 존재이며 누구도 국왕의 지위를 침해할 수 없으며 국왕을 비난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국 형법 112조는 국왕, 왕비, 그의 상속자나 섭정을 비방,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자는 3년에서 15년까지 형벌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Tha Kruaimai Na Ayuthya 1992: 78-81). 뿐만 아니라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강화되고 있다. TV 프로그램은 매일 제일 먼저 국왕과 왕실활동을 방영하고 수상, 군사령관 및 다른 주요 정치, 군사적 중요인물들의 활동을 방영함으로써 사회의 권위주의 계서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Phongpaichit et al. 1995: 315-316).

1980년대 들어서 왕실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추진되었다. 나레쑤언(Naresuan: 1590-1605년) 대왕의 누이인 쑤판(Supana Kanlaya)공주 우상승배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1982년 방콕에서는 현 왕조인 짜끄리 왕조(Chakri: 1782년-현재) 20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옛날 궁터와 몇 개의 왕실 기념물들이 복구되기도 했다. 아유타야 왕조이래 주요한 왕실 행사인 왕실 배 퍼레이드(royal barge parade)가 짜오프라야(Chaophraya) 강에서 다시 재연되었다. 1983년에는 타이어 창제 7세기 기념식이 있었다. 타이어는 수코타이(Sukhithai)왕조 3대 왕인 람캄행대왕(Ramkhamhaeng: 1279-1300년)이 창제했다. 국왕은 1986년 12월 5일 60회 생일에 푸미폰 대왕(King Bhumibol Adulyadej “the Great”)으로 추대되어 입헌군주로서는 최초의 대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1988년에는 태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하는 국왕이 되었다. 1996년 11개월 동안 국왕 어머니 유태공개와 왕실의식으로 치러진 장례식에서 왕실의 영광은 크게 고양되었다. 동년 국왕의 50주년 즉위제가 치러졌으며 이 행사는 1999년 12월 5일 국왕의 72회 생신까지 이어졌다(Kershaw 2001: 147).

2. 푸미폰 국왕의 정치적 역할

싸릿 정권 때부터 정치적 역할을 시작한 푸미폰 국왕은 1973년 10월 14일 학생혁명을 전후하여 태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등장했다. 그는 10월 14일 학생혁명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주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1976년에는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해 국왕은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착실히 이루어 가는 싼렘 정부의 정통성을 지지했다. 1981년 영터크스 주도의 쿠데타가 발생하자 국왕은 쿠데타를 반대하고 국왕제의 신봉자였던 싼렘을 지지했다. 1981년 쿠데타에서 영터크스는 주로 1군을 동원하여 방콕전역을 장악했다. 태국의 1군은 수도권권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부대로서 과거 쿠데타에서 1군은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군부는 국왕의 행적을 찾는데 소홀했다. 국왕은 쿠데타 후 싼렘과 함께 2군사령부가 있는 동북부의 코랏에 피신해 있었다. 국왕의 존재는 이후 쿠데타를 실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 국왕의 도움으로 싼렘은 공군과 2, 3, 4군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국왕이 코랏에 있다는 사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려 졌을 때 군과 민간 지도자들은 싼렘 측에 합류했으며 국왕의 지지로 싼렘 정부는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81년 쿠데타와 관한 국왕의 역할을 비유하여 태국의 한 정치학자는 “1사단을 장악하는 자는 방콕을 장악하며 방콕을 장악하는 자는 태국을 장악했다. 그러나 국왕과 함께 있는 자는 방콕을 장악하지 못해도 쿠데타의 승리자로 등장한다”고 주장했다(Chai-Anan 1986: 166).

1984년 싼렘 정부의 바트화 평가절하정책에 대해 이뒸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는 반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국왕의 중재로 해소될 수 있었다. 국왕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라마야나(Ramayana)의 우화를 인용해 양자간의 타협을 종용했다. 국왕은 이 일을 멈추도록 하는 것은 시간을 멈추도록 하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Hong 1985: 328). 81년 쿠데타에 이어서 이 사건에서도 국왕은 국왕제의 신봉자였던 싼렘정부의 정통성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뿐 만 아니라 1985년 9월 9일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도 국왕은 여전히 싼렘 정부를 지지했으며 쿠데타는 불발에 그치게 되었다.

1988년 7월 선거로 싼렘 정권이 물러나고 찻차이 정권이 들어섰다. 찻차이 정권은 군부와 갈등을 지속하다가 1991년 2월 쿠데타로 붕괴되었다. 쿠데타 발생 후 쑤찐다 장군은 관례에 따라 국왕을 알현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왕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FEER 1991/03/07: 17). 그러나 당시의 국왕의 반응은 쿠데타를 지지하는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국왕은 쿠데타 세력들의 일부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왕실칙령에 이름의 첫머리 글자만을 써서 가 서명했다(Kulick, et al. 1996: 3). 쿠데타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왕이 1991년 쿠데타를 승인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쿠데타를 승인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왕실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91년 쿠데타는 육, 해, 공군 뿐 아니라 경찰까지 모두 가세하였다. 따라서 국왕은 쿠데타를 승인하지 않을 때 닥쳐올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국왕이 정치적 역할을 한 이후 경우에 따라서 쿠데타와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편에 서기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왕실보존과 깊은 관계가 있다. 가장 극명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1976년 10월 쿠데타 지지이다. 푸미폰 국왕은 1973년 10월 14일 학생혁명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후 1976년까지 국내외적인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자 보수세력의 중심축으로서의 국왕은 문민정권의 정통성 훼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 주요 이유는 “……태국의 전통적 기구와 가치들의 보존을 위해서 ……”였다(Morell, et al. 1981: 69). 국왕은 1975년 인도차이나반도 3국이 공산화되고 라오스에서 6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군주제가 붕괴되는 사태 속에서 왕실의 보존에 대한 우려와 국가적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다. 1976년 10월 쿠데타 즈음해서 좌파학생들이 와짜라롱콘(Vajiralongkorn)왕자의 모의 인형을 만들어 교수형에 처한 사건도 국왕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국왕은 1975년 국왕 탄신일에 국민들이 내·외부적인 적의 위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타넘과 빠라팻의 귀국을 묵인했으며, 1976년 쿠데타 성공 후 신년사에서 쿠데타를 국민이 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Turton, et al. 1978: 87, 91).

한편 1991년 쿠데타 후 정치불개입의사를 국민에게 밝혔던 쑤찐다는 민주적 헌법으로의 개정·수상의 자격을 선출직 의원으로 한정토록 하는 조항을

방해하고 친군부정당인 싸막키당 창당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국왕에 의해 임명된 과도내각의 아난 수상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 3월 총선 후 마침내 쑤찐다는 정치불개입의사를 철회하고 수상직에 취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국왕의 희망을 저버리고 말았다.

쑤찐다의 정치 불개입의사의 번복과 수상직 취임은 커다란 정치적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전직 방콕시장 째렁의 단식투쟁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켰으며 야당을 포함한 반정부 세력은 쑤찐다의 사임과 의회해산, 선출직 의원의 수상임명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했다. 이 사태는 5월 20일 국왕이 째렁과 쑤찐다를 왕궁으로 소환하여 타협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일단락 되었으며 쑤찐다는 5월 24일 수상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국왕은 전 국민이 시청하고 있는 TV연설에서 쑤찐다를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꾸짖었다. “그대는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대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아무것도 한일이 없다. 국가를 망쳤다(Kulick, et al. 1996: 21).” 국왕은 왕실의 보존을 위하여 1991년 쿠데타를 승인했으나 중산층과 시민운동세력 주도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5월 민주화 운동에서는 다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지지하게 되었다.

5월 민주화 운동 후 군부가 정치의 장에서 물러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되었을 때도 국왕은 몇 차례의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선 5월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국왕은 과도정부의 구성에 개입했다. 여전히 의회내 다수석을 유지하면서 친군부 정당의 중심 역할을 했던 찻타이당은 당수인 쏘분(Sombun Rahong)을 수상에 지명코자 했으나 국왕은 자신의 측근이며 추밀원 의원인 전직 수상 뽀렘을 통하여 쏘분의 수상지명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아난을 수상에 임명함으로써 아난 문민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했다. 1995년 7월 유사 이래 가장 부패했다고 비난받았던 선거를 치른 후 찻타이당의 반한이 집권했다. 얼마 안 있어 국왕은 반한 정부의 업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결코 이전에 선임자들에게는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Kershaw 2001: 149). 1997년 7월 경제위기가 닥쳐올 즈음해서 빈민구제를 가장 중요한 왕실

사업으로 생각해 오던 국왕은 시위대들이 운집했던 캠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상징적인 지원방식을 취하여 그들과 뜻을 같이 했다. 또 경제위기를 당해서 국왕은 국민들에게 분수에 넘는 생활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자급자족 경제를 옹호했다. 국왕은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상부상조할 것을 강조했다. 국왕은 이미 1995년 12월 5일 연설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그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제위기 와중인 1997년 10월 국왕은 신헌법을 공포하면서 “이 나라의 국민의 헌법(The People’s Constitution)을 승인한다”라는 말로 신헌법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1980년 이후 1997년까지 태국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야기된 정치변동의 잠정적 양상을 정치변동과 관련된 중요한 행위자군, 기업가, 정당, 시민사회운동세력, 국왕-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기간 중의 정치변동 양상은 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서서히 감소하는 탈군부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반면 비관료세력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증대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그 양상의 구체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의 원인은 우선 군 내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태국 군은 몇 개 파벌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파벌주의로 인한 군의 분열은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군은 쿠데타, 헌법개정시도, 정부정책 반대 등의 방식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으나 문민통제의 강화로 이런 시도 대부분은 실패했다. 강력한 문민통제는 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1992년 5월 민주화운동 후 문민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군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감소되

었다. 하지만 군은 상원과 정당참여 등을 통해 정치적 역할을 계속함으로써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비관료세력들은 경제, 사회적 변화로 활발한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기업가 계층은 태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중요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특히 지방 기업가 출신들의 정치참여 현상이 현저했다. 그들은 지방의회와 국회 진출, 주요정당 참여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역할은 경제성장에 따른 전통적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정치·경제개혁운동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태국의 정당은 전례 없는 정당정치 강화 노력을 하면서 정당정치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영향력을 증대해 나갔다. 그러나 비관료세력들 중 지방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은 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정당의 파벌주의, 금권정치와 부정부패를 악화시켰다. 정당정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와 같은 문제점들—다당제, 파벌주의, 명사정당, 금권선거, 지역주의화 현상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입헌군주인 푸미폰 국왕은 정치변동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푸미폰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개인적인 카리스마적 자질과 취약한 정치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의 카리스마는 “국왕, 종교, 국가”라는 국가이데올로기, 국왕개발계획과 몇 가지 수단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국왕은 입헌군주라는 법적 제약성 때문에 정치변동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나 군과 비관료세력간의 대립으로 야기된 정치적 위기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치변동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었다. 국왕이라는 정치적 변수는 여전히 태국 정치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태국 정치변동의 양상 중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역할이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태국정치의 기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1992년 5월 민주화 운동과

1997년 헌법개정작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대로 군의 정치적 역할이 계속되고 있고 비관료세력들의 정치적 역할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국정치의 이해를 위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관료지배체제의 유효성과 새로운 정치적 분석시각의 필요성이 공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997년을 전후하여 태국의 정치, 경제개혁과정에서 그 극복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때 많은 태국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반권위주의, 반관료주의,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주장하여 중산계층, 기업가, 자본가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인사들은 전직 수상이며 테크노크라트인 아난(Anand Panyarachun), 정치학자인 차이아난(Chai-Anan 1997), 프라 웻(Prawes 1999), 1973년 학생혁명의 지도자 티라웃 등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 태국 정치체제의 문제점과 지향할 바를 동시에 적절히 지적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이후 태국의 정치변동은 또 한차례의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태국은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신속한 정치개혁을 이루게 된다. 정치개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헌법의 의회 통과였다. 신헌법의 내용은 각료의 의원 겸직금지, 부정축재를 감시하는 기관의 강화, 군부의 영향력 하에 있던 상원에 대한 직접선거, 비례대표제, 소선거제의 병행, 지방분권의 추진, 국민의 권리 확대, 기존 정당정치의 폐해, 금권정치의 폐해 및 군부의 영향력 제거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1997년 신헌법은 전통적인 관료지배체제의 특성과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획기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관료지배체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시각으로 정치체제를 분석할 여지를 넓혀주고 그 필요성을 더욱 정당화 시켜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후 전개되는 정치상황은 이를 현실화 시켜 주고 있다.

1997년 헌법에 의해 2000년 3월과 2001년 2월 각각 상, 하의원 선거가 치

러졌다. 상원의원 선거가 직선으로 치러져 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현저히 줄게 되었다. 소선거구, 정당명부제가 도입되어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결과 타이락 타이당(Thai Rak Thai Party)이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차지하여 다당제를 비롯한 기존정당 정치의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고 정국의 안정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도 이루어졌다. 시민사회운동세력들은 경제위기 후 전체적인 구조조정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금권정치와 부정부패 타파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 같이 신헌법의 의회통과 후 급속히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전개의 지속성 여부는 향후 태국 정치변동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사회구조, 정치변동, 관료지배체제, 준민주주의, 비관료세력

참고문헌

- 김홍구. 1996. 『태국군과 정치』. 서울: 전예원.
- . 1998. “입헌군주제하에서의 태국국왕의 카리스마와 정치적역할.” 『국제지역연구』 7(1).
- 윤진표. 2001. “태국의 정당정치.” 고우성 외. 『동남아의 정당정치』. 서울: 오름.
- 이병도. 2000. “태국정당정치의 변동과 제도화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경아. 2000. “1997년 신헌법제정을 통해 본 태국의 정치개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ek Laothamatas. 1992. *Business Associations and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Thailand: From Bureaucratic Polity to Liberal Corporatism*. Boulder:

Westview Press.

Anek Laothamatas. 1995. *Song karhara prachathippatai: naew thang patirup kan muang sethakit phua prachathippatai*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경제개혁 방향). Bangkok: Matichon.

Asian Survey 1993/09.

Bunte, Marco. 2001. "Consolidating Thai Democracy." Michai H. Nelson (ed.). *Thailand's New Politics*. Nonthaburi: King Prajadhipok' Institute.

Callahan, William. 1995.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Violent Action, and Post-Modern Politics in Thailand." *SOJOURN* 10(1).

Case, William. 2002. *Politics in Southeast Asia*. Richmond: Curzon Press.

Chai-Anan Samudavanija. 1982. *The Thai Young Turk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1986.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Thailand: Continuity and Change." Robert Scalpino, Seijaburo Sato, and Jusuf Wanandi (eds.). *Asia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 1997. *Wattthanatham kue tun* (문화는 자본이다). Bangkok: P. Press.

Far Eastern Economic Review(FEER) 1991/03/07; 1996/01/18.

Hewison, Kevin. 1993. "Of Regimes, State and Pluralities: Thai Politics Enters the 1990s." K. Hewison, R. Rodan, and G. Rodan (eds.). *In Southeast Asia in the 1990s: Authoritarianism, Democracy and Capitalism*. Sydney: Allen & Unwin.

———. 1996. "Political Oppositions and Regime Change in Thailand." G. Rodan (ed.). *Political Oppositions in Industrialising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1997. *Political Change in Thailand: democracy and participation*. London: Routledge.

Hong, Lisa. 1985. "Thailand in 1984: Towards a Political Modus Vivendi."

Southeast Asian Affairs 198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Kershaw, Roger. 2001. *Monarchy in South-East Asia*. New York: Routledge.

Kulick, Elliot and Dick Wilson. 1996. *TIME for Thailand*. Bangkok: White Lotus.

Morell, David and Chai-anan Samudavanija. 1981. *Political Conflict in Thailand*. Cambridge, Mass.: Oelgeschlager, Gunn and Hain, Publishers.

Mulder, N. 1996. *Inside Thai Society: Interpretations of Every Lifes*. Bangkok: Edition Duang Kamol.

Phongpaichit, Pasuk and Baker, Chris. 1994. *Thailand: Economy and Polit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hongsapich, Amara. 1999. "Politics of Civil Society." *Southeast Asian Affairs 1999*. Singapore: ISEAS.

Riggs. Fred W. 1966. *Thailand: The Modernization of a Bureaucratic Polity*. Honolulu: Esat-West Center Press.

Sinsawat, Narong. 1996. *Kaan-muang Thai: Kaan-wikhrochungchitawithya*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태국 정치). Bangkok: Duang Kamol.

Suchit, Bunbongkarn. 1987. *The Military in Thai Politics 1981-86*.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Tha Kruaimai Na Ayuthya. 1993. *Thosaphitharaachatham* (열 가지 법). Bangkok: Tonoo.

The Nation 1998/02/21.

Thirayuth Boonmee. 1993. *Chut plian haeng yuk samai* (새 시대의 전환점). Bangkok: Winyuchon.

Turton, Andrew, Jonathan Fast and Caldwell, Malcolm (eds). 1978. *Thailand: Roots of Conflict*. Nottingham: Spokesman.

Wasi, Prawes. 1999. *Setakit por piang lae prechakom: Naew thang plik fuen setakit sangkhom* (자립경제와 시민사회). Bngkok: Mor Chaoban.

Abstract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and Political Change in Thailand

Kim Hong Koo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ailand has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since 1980's. With these, extra-bureaucratic groups-businessmen, political parties, civic groups-have strengthened political powers and shared political powers with the military and civil bureacrats. The general aspect of political change since 1980's in Thailand can be explained that the military power was getting weaker, while the political power of extra-bureaucratic groups was getting stronger, even exceeding the military power.

This thesis focuses on the tentative aspects of political change followed by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especially with having keen interest in the important actors related to the political change-military, businessmen, political parties, civic groups and the King.

In details, I analyze the following three factors. the first factor is the internal change of military and the civilian control against the military which become the main causes for alleviating the military political powers. The second factor is the political role of extra-bureaucratic groups-businessmen, political parties, civic groups-which will result in expanding their political powers. The last factor is the King's political role as a peacemaker when the above-mentioned two important powers struggle to take power.

**Key Words: social structure, political change, bureaucratic polity,
semi-democracy, extra -bureaucratic group**